

유몽인의 <풍악기우기(楓嶽奇遇記)> 연구

A Study on Yu Mong-in's <Pung-akgiugi(楓嶽奇遇記)>

조현석[✉]

국문요약 『어우집』 권6 잡저에 수록된 <풍악기우기(楓嶽奇遇記)>는 유몽인이 1622~1623년 금강산을 방문한 경험을 담은 작품이다. 이 작품의 제목은 사실적 기록인 기(記)를 표방하면서도 내용은 의인화된 금강산 자연물들이 등장하는 허구적 서사라는 특징을 갖는다. 또, 몽유록 혹은 전기소설과 유사하지만 미묘하게 다른, '도입부-등장부-연회부-종결부'의 4단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유몽인이 심혈을 기울인 부분은 인물 소개의 등장부다. 일관성 있는 중의적 단어의 사용 및 고사의 사용을 통해 등장 인물을 정교하게 형상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작품은 창작 시기와 연관지어 볼 필요가 있다. 주인공의 불운한 심정이나 위로에 대해 드러내면서도 그 상황 설명은 의도적으로 누락된다. 이 당시 유몽인은 병으로 인한 신체적 위기뿐만 아니라 대북파와 인조반정 세력 양쪽으로부터 배척받던 정치적 위기 상황이었다. 그렇기에 유몽인은 작품에 불운한 상황에 대한 의견과 감정이 드러날 토론부와 시를 누락하였다. <풍악기우기>는 유몽인이라는 독특한 작가와 정치적 상황, 명산 금강산이 맞물리면서 산출된 작품이다. 그렇기에 이 작품은 '드러냄'과 '은근함' 사이에서의 치열한 고민의 결과이며 문학을 통한 위로라는 측면에서도 하나의 예시가 된다. 또, 몽유록이나 전기소설의 자장에 놓이면서도 금강산 산행이라는 실제 경험과 관련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한국 문학에 다양성을 보충해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핵심어 풍악기우기, 유몽인, 금강산, 창작 배경, 의인화, 어우집

- 차례**
1. 들어가며
 2. <풍악기우기> 분석
 3. <풍악기우기>의 창작 배경과 특징
 4. 나가며

1. 들어가며

<풍악기우기(楓嶽奇遇記)>¹는 유몽인(柳夢寅, 1559~1623)이 말년에 금강산에 올랐던 경험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제목에 산의 이름(楓嶽²)과 함께 기(記)라는 문체명이 적

• 이 논문은 고려대에서 열린 제1회 한국어문학 전국학술캠프에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이때 토론 및 질점으로 도움을 주신 선생님들과 수업에서 조언을 주신 송혁기 선생님, 그리고 익명의 심사위원 세 분께 감사드린다.

✉ 고려대학교 국문과 대학원 박사과정

1 본고에서는 한국고전종합DB에서 제공하는 『어우집』을 참조 및 인용하였다. 이는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영인·간행한 것으로, 산일(散佚)되고 남은 수고본을 유몽인의 후손이 수집, 편차하여 1832년(순조32)에 전집(유금(柳棗)·후집(유영무(柳榮茂) 포함 12권의 목할자로 간행한 것이다. 다만, 간행 당시 이미 산실이 많이 되었으며, 비용 문제로 결국 속집은 간행되지 못한 채 유실되었다. 김홍백, 『『어우집』 해제』, 한국고전종합DB, 2016.

2 풍악산(楓嶽)은 금강산의 가을 외형과 관련한 명칭이다. 이외에 개골(皆骨), 기달 혹은 지달(快怛, 枳怛), 열반(涅槃), 중향성(衆香城) 등의 용

혀 있다는 점에서 산수유기(山水遊記)³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작품을 들여다 보면 산행 경험·여정을 사실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허구적으로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산수유기와는 거리가 멀다. 또, 이 작품이 『어우집』 권6 잡저(雜著)⁴에 수록되었다는 점에서부터 정통적인 문체에서 벗어난 독특한 성격을 가졌을 것임을 추정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작품은 실제로 어떠한 허구를 그려내고 있을까? 그 단서는 제목의 ‘기이한 만남[奇遇]’에 있다. 이때 만남의 대상은 금강산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연물이다. 다만, 유몽인은 금강산에 올라 자연물을 감상한 이야기를 기이한 만남이라고 하지는 않았다. 유몽인은 이와 반대로 ‘자연물’이 ‘유선생’을 직접 찾아와 만나는 이야기를 그렸다. 이를 위해 유몽인은 의인화라는 허구적 장치를 활용하였다. 다시 말해 <풍악기우기>는 의인화된 금강산의 자연물들이 유선생을 찾아가 자기소개를 하고 대화를 나누며 연회를 즐긴 뒤 퇴장하는 이야기를 담은 허구적인 작품이다.

다만, 유몽인이 완전히 허구로 작품을 지은 것은 아니다. 산수유기만큼의 사실적 경험 기술은 아니지만, 작품 곳곳에 유몽인의 산행 경험이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순전히 꾸며낸 것이 아니라 금강산에서의 경험을 허구적인 방식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왜 유몽인은 산수유기가 아닌 의인화를 활용한 허구적 성격의 새로운 글을 짓게 되었을까? 유몽인은 <유두류산록(遊頭流山錄)>이라는 지리산에 대한 산수유기

를 남기기도 했으며⁵ 1차 금강산 산행 이후에도 산수유기를 남겼을 정도로⁶ 산수유기라는 형식에 익숙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따져볼 필요가 있는 문제다.

본고에서는 여기에 착안하여 연구를 출발하였다. <풍악기우기>는 단독으로 연구된 적이 없다. 유몽인 말년의 산문을 훑으면서 간단히 언급한 연구가 존재하고⁷ 산행과 관련한 선집에서 산수유기와 나란히 소개되었을 뿐이다.⁸ 그렇기에 본고는 우선 <풍악기우기>를 면밀히 분석하고 작품의 특징과 창작 배경을 그의 생애, 특히 유몽인의 두 차례의 금강산 방문과 그 당시 상황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2. <풍악기우기> 분석

<풍악기우기>는 의인화된 금강산 자연물들이 유선생(유몽인)과 기이한 만남을 가진 뒤 헤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기에, 만남이라는 핵심 사건을 중심으로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표 1〉<풍악기우기>의 전체 단락

① 도입부
② 등장부: 바위 봉우리, 시내, 소나무, 구름, 학, 바람, 달
③ 연회부
㉠ 연회의 시작
㉡ 연회 음식 및 음악 소개
㉢ 유선생의 시작(詩作)
④ 종결부
㉠ 달의 퇴장
㉡ 눈의 등장 및 등장인물들의 퇴장
㉢ 유선생과 학의 하산

가 존재하는데, 본고에서는 현재 널리 사용되는 지명인 금강산을 사용하고자 한다.

3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산에 올라 시 짓기, 『심경』과 같은 책 독서를 통해 심성을 수양하기도 하였으며, 여정에서 사람들과 토론을 즐기기도 하였다. 다녀온 후에는 산행의 계기나 유람 경로, 특별한 경험 등 산행과 관련한 기록을 사실적인 필체로 남겼는데, 이것이 산수유기(山水遊記) 혹은 유산록(遊山錄)이다. 산수유기는 사대부들의 산행 결과물이며 동시에 산행 준비물이기도 하였다. 선배들의 산수유기를 참고하여 경로를 정하기도 하였고 선배의 감상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기도 했다. 이후 자신도 산수유기를 작성하여 산행 문화에 참여하였다. 정치영,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유람 중의 활동」, 『역사민속학』 42, 한국역사민속학회, 2013 참조.

4 잡저(雜著)는 잡다한 저술을 모아놓았다는 뜻으로, 시(詩), 서(序), 발(發), 기(記) 등의 정통 한문학의 문체에서 벗어나 분류하기 어려운 작품들이 수록되곤 한다.

5 안세현, 「柳夢寅의 『遊頭流山錄』 연구: 지리산 遊記의 전통과 관련하여」, 『동양한문학연구』 24, 동양한문학회, 2007.

6 이와 관련하여서는 42, 43번 각주 참고.

7 김홍백, 「유몽인의 經世 의식과 산문세계」, 서울대 국문과 박사학위논문, 2014.

8 심경호, 『산문기행: 산에 오르며 내면을 채우는 조선 선비의 산행기 65편』, 민음사, 2022.

작품의 기본 정보(인물, 배경, 상황)를 제시하는 ‘도입부’, 자연물들이 차례로 등장하여 유선생에게 자기소개를 하는 ‘등장부’, 연회를 벌여 음식, 술, 음악을 즐기고 유선생이 시를 짓는 ‘연회부’, 연회가 끝난 후 달을 포함한 자연물이 퇴장하고 유선생도 하산하는 ‘종결부’로 쪼개볼 수 있다.

2.1. 도입부

어우(於于) 유선생(柳先生)이 풍악산(楓岳山) 표훈사(表訓寺)에 머물 적에 3개월 동안 병을 앓고서 비로소 일어나서는 밤마다 남쪽 누대에 올라 스스로 번민을 달랬다.⁹

도입부에서는 이야기의 배경이 제시된다. 공간적 배경은 금강산 표훈사와 그 남쪽의 누대다. 시간적 배경은 밤이며, 계절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유선생이 병을 3개월 앓았다는 서술을 통해¹⁰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점임을 추정할 수 있다.

주인공 어우 유선생(於于 柳先生)의 상황도 소개되어 있다. 어우(於于)라는 호칭을 통해 주인공이 어우당(於于堂) 유몽인임을 쉽게 추정해볼 수 있다. 그렇지만 유몽인은 굳이 주인공을 따로 설정함으로써 1인칭[余]이 아닌 3인칭[어우 유선생]을 사용하였다. 이는 의도적으로 주인공과 서술자 사이에 거리를 둔 것인데, 그러면서도 작중 유선생의 병환은 실제 유몽인의 경험과 연결점을 갖는다. 그렇기에 주인공을 자신과 분리시켜 허구적인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속에 실제 경험을 ‘은근히’ 반영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작품 전체에 반영될 수 있는 시각이다. 이를 바탕

으로 <풍악기우기>의 핵심 사건을 실제 상황으로 변환해 보면, 유몽인은 실제로 불울한 마음을 갖고서 ‘밤마다[常夜] 남쪽 누대에 올라 금강산 풍경을 감상함으로써 ‘스스로를 위로[自遣]’하였던 상황을 은근히 표현한 것임을 추측해볼 수 있다.

2.2. 등장부

배경 설명 이후 유선생에게 견백주인(堅白主人)이라는 인물이 찾아오며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

홀연 장대하고 흰칠한 어떤 이인(異人)이 동자를 시켜 견백주인(堅白主人)이라고 성명을 통하면서 만나기를 청하였다. 선생이 동자의 부축을 받으며 두 번 절하고서 자리를 털고 좌정하였다. 견백주인이 말하였다.

“나는 본래 이 산의 주인으로, 성은 석(石)입니다. 천지가 개벽한 이래로 우리 서씨가 이 땅에 봉해진 것이 일만 이천인데, 모두 단단하고 흰 것[堅白]을 숭상하며 공손결자(公孫乞子)의 동이지학(同異之學)을 좋아합니다. 지금 선생께서 객들을 본 지 여러 달이니, 청컨대 한가한 틈을 타서 기이한 만남을 이루고 싶습니다.”¹¹

견백주인은 스스로를 바위 봉우리이라고 소개하지는 않는다. 그 대신 자신을 소개하는 단어를 통해 자신이 바위 봉우리의 의인화임을 은근히 암시할 뿐이다. 서술자는 견백주인의 외형을 묘사하며 참암(巖巖)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바위산을 묘사할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다. 또, ‘견백(堅白)’과 ‘동이지학(同異之學)’은 공손룡이 희고 단단한 돌을 가지고 제기한 문제인 견백동이(堅白同異)론¹²과 연결된다. 그 외에도 견백주인의 성씨가 석(石)이

9 於于柳先生樓楓嶽之表訓寺，病三月始起，常夜登南樓以自遣。

10 『어우집』 제2권 「금강록(金剛錄)」의 「病後贈僧二首」에서 유몽인이 금강산에서 지낸 겨울에 병을 앓았음을 알 수 있다(밤새도록 앓으니 한열이 오르내리고(竟夜沈綿水火俱)). 따라서 「풍악기우기」의 시간적 배경은 1622년 가을에서 1623년으로 넘어가는 겨울로 추정할 수 있다.

11 忽有異人，狀貌魁傑巖巖，使童子通名曰：“堅白主人。”請見，先生令童子扶而再拜，撤席坐定。主人曰：“余本斯嶽之主，姓石，自開闢吾石氏封於斯地者，一萬有二千，皆尚堅白，喜爲公孫乞子同異之學。今先生見客累月，請乘暇日爲奇遇。

12 전국시대 조(趙)나라의 공손룡(公孫龍, B.C.320~B.C.250)이 주장한 것으로, 『공손룡자(公孫龍子)』에 대화 형식으로 실려 있고 『사기』 권74 「맹

라는 점, 일만 이천 명이 봉해졌다는 점을 통해서도 정체를 암시하였다. 독자는 이런 단서를 통해 견백주인이 금강산의 바위로 된 봉우리를 의인화한 존재임을 짐작하게 된다.

〈표 2〉는 견백주인을 제외한 인물들의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표 2〉〈풍악기우기〉의 등장 인물 정리표

호칭	특징
清溪道流 [시내]	자(字) 중심(仲深), 안문(雁門)에서 나옴(금강산 안문재). 선파(仙派)와 청류(清流)를 이끌고 동부(洞府)를 따라 누대 아래에 노닐.
會稽 張丈人 [소나무]	신장이 열 길에 달하고 푸른 수염(蒼胡)을 드리우고 붉은 갑옷(赤甲)을 걸침. 일족 모두 이 산에서만 사는데 몇 천, 몇 만 인지도 모름. 유선생이 의용이 뛰어나다고 여겨 급히 맞이함.
丹冠老仙 [학]	금강대(金剛臺)에 대대로 사는 존재. 유선생과 30년 전에 만난 적이 있음.
靑蘋逸士 [바람]	이름은 웅(雄). 등장할 때 휘익 지나가며 피부와 뼈를 맑고 시원하게 만듦.
無心過客 [구름]	성명 대신 무심히 지나가는 객[無心過客]이라는 대답만 함. 상하사방을 자유자재로 노니는 존재로, 고요하여 연회장으로 찾아왔음.
至明正素極圓元 晦太淸太夫人 [달]	상서로운 빛을 내뿜으며 등장하였으며, 견백주인이 친히 소개함. 동해 일출봉 왼쪽(월출봉)에서 소나무 숲을 지나서 옴.

이를 보면 유몽인은 다른 인물을 등장시킬 때에도 그 정체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이름, 행동, 특징 등을 통해서 정체를 간접적으로 암시하였다. 즉, 유몽인은 자연물의 특징과 고사를 통해 독자가 정체를 추측하게 하여 흥미를 느끼도록 하였다.

청계도류(淸溪道流)는 금강산의 시내를 의인화한 인물이다. 이 인물의 묘사에서 특징이 되는 지점은 중의적 의미의 단어를 일관되게 사용했다는 점이다. ‘淸溪道流’라는 호칭에서부터 ‘맑다[淸]’, ‘물길[溪, 道流]’, ‘도가[道]’라는 세 가지 의미를 동시에 살펴볼 수 있는데, 청계(淸溪)는 ‘맑은 시내’라는 뜻이면서 동시에 ‘속세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를 갖는다. 또, 도류(道流)는 ‘물길’이라는 뜻이면서 ‘도

가의 유파’라는 의미를 함께 갖는다. 더군다나 그가 데려온 선파(仙派)와 청류(清流)는 도가를 따르는 인물들을 의미하고, 그가 머물렀던 동부(洞府)는 신선들이 사는, 산에서 그윽하고 맑은 곳을 의미하면서도 이 단어들은 모두 물길(派, 流, 洞)과 관련한 단어임을 파악할 수 있다. 즉, 유몽인은 중의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시내’를 의인화한 인물임을 드러내면서도 시내가 갖는 ‘맑음’ 이미지를 도가(道家)와 연결지어 형상화하였다.

회계 장장인(會稽 張丈人)¹³은 외양 묘사에 집중하였다. 길쭉한 외양과 함께 갑옷같은 붉은 깃털에 수염같은 푸른 잎¹⁴을 가지고 있다는 시각적 묘사를 넣어 소나무임을 추정하도록 하였다.

단관노선(丹冠老仙)은 ‘붉은 관을 쓴 늙은 신선’이라는 의미로, 실제로 붉은 관을 쓴 늙은 신선일 수도 있지만 그 보다는 머리 위의 붉은 반점이 있으면서 신선의 이미지와 함께 등장하는 학을 은유적으로 지칭한다. 또, 목이 길다는 외양 묘사나 너울너울 날아왔다는 서술을 통해서, 이 인물이 학이라는 증거를 배치하였다. 더군다나 사는 곳이 실제로 학이 많이 사는 금강대(金剛臺)라는 정보를 통해서도 배경지식을 통해 정체를 추정해보도록 하였다.

청빈일사(靑蘋逸士)의 경우, 바람을 묘사할 때 자주 쓰는 표현(颯然)과 촉각적 심상(淸冷)을 활용하여 바람을 의인화한 인물임을 드러냈다. 또, 그 호칭[靑蘋]¹⁵과 이름[雄]¹⁶에 바람과 관련한 고사를 사용함으로써 그 인물이

13 회계 지역과 소나무가 관련된 고사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였다. 뒤의 장장인(張丈人)은 긴 사람이라는 뜻으로, 소나무의 외양을 상징하는 호칭으로 볼 수 있다.

14 蒼胡(蒼髯), 赤甲는 푸른 수염과 붉은 갑옷으로 소나무의 외형을 묘사할 때 자주 사용된다.

15 전국 시대 초나라 송옥(宋玉)의 「풍부(風賦)」에 보인다. “무릇 바람은 땅에서 생겨나는데, 푸른 마름꽃 끝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夫風生于地 起于靑蘋之末)”라는 구절을 근거하면, 청빈(靑蘋)은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형용하는 단어다.

16 웅풍(雄風) 역시 송옥(宋玉)의 「풍부(風賦)」에 보인다. 송옥은 초 양왕과의 대화에서, 왕이 사는 곳에 부는 상쾌하고 시원한 바람을 대왕풍(大王風, 雄風)으로, 곤궁한 백성들의 집에 부는 좋지 못한 바람을 서인풍(庶人風, 雌風)으로 나누곤, 어찌 대왕과 서인이 같은 바람을 누리겠냐며 초 양왕(楚襄王)을 풍간하였다.

자순경열전」에 언급되어 있다. 공손룡은 “단단하고 흰 돌[堅白]은 눈으로 보면 흰 것만 알게 되고 만져보면 굳은 것만을 알게 되니, 흰 돌과 단단한 돌은 다른 것이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바람의 의인화라는 점을 암시하였다. 거기에 일사(逸士)라는 수식어를 넣어 ‘숨어 사는 선비’의 모습과 함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를 중첩하여 제시하였다.

이와 달리 구름은 그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단지 무심히 지나가는 객(無心過客)이라고만 밝혔다. 이는 아무런 존재감이나 인기척 없이 순식간에 와서 앉는 모습,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자유자재로 다니는 모습과 함께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유유자적하게 떠다니는 구름의 특성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태청 태부인이 등장하는데, 그녀는 다른 인물과 달리 등장부터 고귀한 모습을 보인다. 상서로운 빛[瑞光]으로 주변을 환하게 밝히며 등장하며, 견백주인이 그녀의 등장을 보고 놀라 기뻐하며 대신 소개하는 모습도 보인다. 고귀한 인물임을 뒷받침하듯 호칭도 매우 긴데, 그 뜻을 풀자면 지극히 밝고[至明] 순일하고 희며[正素] 매우 동그라며[極圓] 엄청 어두운 밤에[元晦] 매우 선명한[太淸] 태부인¹⁷이다. 시간적 배경이 밤이라는 점, 동쪽에서 빛을 내며 떴다는 점, 호칭에 元晦가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일출봉 왼쪽에서 떴다는 서술을 통해 의인화된 달이라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다.¹⁸

특히 일출봉(日出峯) 원편이라고 언급한 부분은 주목을 요한다. 금강산의 일출봉 옆에는 월출봉(月出峯)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달임을 드러내기만 하면 되었다면 월출봉에서 왔다고 표현해도 된다. 하지만 유몽인은 굳이 ‘일출봉의 왼쪽’이라고 표현하였다. 이는 의도적인 서술로, 그 이유는 ‘월출봉’의 ‘월(月)’이 그 인물의 정체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이라 추측할 수 있다.

이처럼 유몽인은 인물들을 소개할 때 그 정체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독자들이 한 단계 추론이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정체를 추측해보도록 만들었다. 더군다나 전고의 반영 및 중의적 단어의 일관적인 사용을 고려해볼 때, 유몽인은 이 핵심 인물을 소개하는 것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2.3. 연회부

금강산 자연물들이 누대에 모두 모이자, 견백주인의 주도 하에 연회가 시작된다. 연회의 목적은 유선생을 위로하는 것이다. 이때 연회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술, 음식과 음악이다. 견백주인은 술을 한 잔씩 돌리며 특정한 인물들에게 음식을 올리기를 요구한다. 재밌는 점은 그 인물들의 이름이 금강산의 여러 장소와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이에 주인옹이 향성진선(香城眞仙)으로 하여금 청계자(靑桂子)를 각각 한 소반씩 올리게 하고, 송림암도석(松林菴道釋)으로 하여금 복령고(茯苓饅)를 한 그릇씩 올리게 하며, 만폭동주(萬瀑洞主)에게는 적포도 밀장(赤葡萄 蜜漿)을 바치게 하고, 구정동영(九井洞靈)에게는 오미자와 향이(香餌)를 바치게 하였다. 노봉(盧峯)에게는 석지(石芝)를 따도록 명하고, 미파(彌坡)에게는 자지(紫芝)를 뜯도록 시켰다. 마하신인(摩訶神人)은 송아울황주(松芽鬱黃酒)를 올리고, 사후(獅吼), 경명(鯨鳴), 범패(梵唄), 쟁고(鍾鼓)의 음악을 연주하여 즐겁게 하였다.¹⁹

위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금강산의 유명한 명소를 의인화한 인물이다. 이들의 호칭은 중향성(衆香城), 송림암(松林庵), 만폭동(萬瀑洞), 구정봉(九井峯), 비로봉(毗盧峯), 미시파령(彌時坡嶺), 마하연암(摩訶衍庵) 등 금강산에만 존재하는 특정한 명승지가 들어가 있어서, 앞의 핵심 인물이 범범한 범주의 자연물과 보편성·특수성에서 차이를 보인다.²⁰ 이는 유명한 승지의 이름을 직접 제시함으로써 금강

17 이 인물이 등장인물 중 유일하게 여성의 이미지로 등장하는데, 이는 달이 음(陰)의 이미지라는 점(태양은 陽의 이미지)이나 달의 여신으로 불리는 향아가 ‘太陰星君’로 불린다는 점 등을 근거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18 김홍백의 박사학위논문(김홍백, 앞의 글, 115쪽)과 그가 작성한 한국고전종합DB의 번역에는 이 인물을 태양의 의인화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인물은 달의 의인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9 於是主人翁使香城眞仙進靑桂子各一盤, 松林菴道釋進茯苓饅各一器, 萬瀑洞主供赤葡萄蜜漿, 九井洞靈奉五味香餌, 命盧峯摘石芝, 令彌坡採紫芝, 摩訶神人呈松芽鬱黃酒, 陳獅吼, 鯨鳴, 梵唄, 鍾鼓之樂以娛之.

20 이처럼 ‘풍악기우기’에는 금강산의 명소를 의인화한 인물이 아니라 보편

산의 명소에 대한 일종의 정보를 제공하고, 그곳에서 나는 유명한 음식 또한 소개한 것이다. 동시에 속세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신선의 정취를 풍기는 음식이라는 점에서 작품 전체의 도교적 분위기를 형성하기도 한다.

연회의 음악으로 제시된 사자후²¹, 경명²², 범패²³, 쟁고²⁴도 유사한 역할을 하는데, 유몽인은 여기에 불교와 관련된 단어를 의도적으로 일관되게 활용하였다. 그 이유는 표훈사의 남쪽 누대라는 장소적 특성이 반영된 것이면서 도교 외에 불교적 분위기도 함께 제시하고자 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다시 붉은 노을[紅霞]을 펼쳐서 비단 종이로 삼고, 동해의 바닷물을 끌어와 벼룩물로 삼고, 오로봉(五老峯)을 쓰러뜨려 붓으로 삼고서 선생에게 시를 지어달라고 청하였다. 선생이 붓을 휘두르자, 산 귀신과 숲 도깨비가 모두 호느껴 울었다.²⁵

적인 자연물이 핵심인물로 등장한다. 그 이유는 유몽인이 누대에서 살펴 볼 수 있는 자연물에 대해 이야기하였기 때문이라 볼 수도 있고, 어디에나 존재하는 큰 범주의 자연물이 유몽인과 교유하고 그보다 아래에 특수한 명소를 두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혹은 유몽인이 이 인물들의 정체 파악을 작품의 핵심적인 흥미점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별도의 갈등이 두드러지지 않는 작품이다. 그렇기에 독자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지점은 그들의 정체를 파악하는 부분이다. 만약 금강산의 특수한 명소를 핵심 인물로 제시할 경우, 그에 대한 맥락이 부족한 독자들은 정체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고 그만큼 흥미를 느낄 가능성이 줄어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짐작하기 용이한 보편적인 자연물을 바탕으로 의인화를 진행하여 핵심 인물로 설정하고, 그 대신 명소에 대해서는 간략히 주변 인물로 제시하여 이름을 통해 그 정체를 간략히 추정해볼 수 있도록 제시하였을 것이다.

- 21 부처의 위엄(威嚴) 있는 설법(說法)을, 사자(獅子)의 울부짖음에 모든 짐승이 두려워하여 굴복(屈服)하는 것에 비유(比喩·譬喩)하여 이르는 말. 『동국대학교 불교용어사전』.
- 22 鯨音, 고래에서 일어나는 소리란 뜻으로, 범종(梵鐘)의 소리나 범종을 말한다. 바닷가에서 사는 포로(蒲牢)라는 짐승은 고래를 무서워하여 고래가 물 위로 솟으면 소리를 내어 우는데, 그 소리가 마치 범종 소리와 비슷하므로 종소리를 경음이라고도 한다. 『동국대학교 불교용어사전』.
- 23 석가여래(釋迦如來)의 공덕(功德)을 찬미(讚美)하는 노래로 4법요(法要)의 하나임. 범회를 시작(始作)할 때 먼저 래묘색신(如來妙色身)의 계송(偈頌)을 읊으며 부처의 높고 큰 덕을 찬미(讚美)한다. 여래배(如來頌)라고도 한다. 『동국대학교 불교용어사전』.
- 24 징과 북으로 엮불을 울 때 사용되는 악기를 의미한다. 『동국대학교 불교용어사전』.
- 25 復展紅霞爲綵綫, 控東溟爲硯池, 偃五老峯爲筆穎, 請先生賦詩. 先生放筆而題之, 山鬼, 林夔皆泣焉.

연회의 흥이 무르익었을 때쯤, 자연물들은 유선생에게 시를 지어달라 부탁한다. 이때 시를 쓰는 도구가 일반적이지 않다. 노을을 비단 종이로, 동해 바닷물을 벼룩물로, 오로봉을 붓으로 삼고 있는 등 자연물과 주변 지형지물을 일종의 도구로 사용하는 등 재치있는 상상력이 발휘되어 있다. 이때 주목할 지점은 유선생이 지은 시가 산귀신과 숲 도깨비를 울리고 있다는 점으로, 그 시가 매우 슬픈 정조를 담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이는 몽유록에서의 시작(詩作) 장면과 유사하다. 하지만 본문에는 그 시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지 않는다. 불울함과 슬픔을 갖고 있었다는 정황만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일반적으로 시에 감정이 집약적으로 제시된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이 공백은 의도적인 것이다. 다만, 무조건적인 공백이 아니라 슬프고 불울한 심정이 존재함은 드러내면서도 그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공백을 선택하였다. 즉, 유몽인은 자신의 정황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은근히 암시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2.4. 종결부(파연 및 퇴장)

술이 몇 순배 돈 뒤에 태청태부인이 먼저 일어나 이별을 고하였다.

“지금 동이 뜨기 전에 곤륜산(崑崙山)을 거쳐 현포(玄圃)를 지나서 약목(若木)의 언덕에서 서영선자(西瀛仙子)와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누대를 내려가 떠나니, 좌중에 있던 모든 이들이 무엇을 잃은 듯이 허둥지둥하였다.²⁶

이후 분위기가 무르익자 태부인은 ‘동 뜨기 전 서영선자를 만나기로 한 약속이 있다’며 자리에서 물러난다. 이

26 酒數行, 太清太夫人先起而辭曰: “今將趁未曙, 歷崑崙過玄圃, 與西瀛仙子相期於若木之墟.” 遂下樓而去, 滿座迴惶如失.

때 약속 장소인 곤륜산, 현포는 신선들이 사는 장소이며, 약목은 곤륜산의 서쪽 끝, 해 지는 곳에 있는 나무다. 즉, 서영선자는 서해 바다를 의인화한 존재다. 따라서 태부인과 서영선자의 만남은 동이 뜨기 전 동쪽에서 뜬 달이 서쪽 바다로 지는 것을 은유하는 것으로, 시간의 흐름을 인물의 행동을 통해 표현한 부분이다. 다만 이는 단순히 시간이 흘렀음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조금 뒤에 음기(陰氣)가 사방에 가득 들어차고 산기운이 어두침침해졌다. 주인옹이 이맛살을 찌푸리고 낮빛을 바꾸며 말하였다.

“화산 백거사(花山 白居易)가 다시 오시는군.”

선생이 배회하며 사방을 둘러보니, 견백주인은 이미 머리가 허연 늙은이가 되어 있었고, 청계도류는 깊은 골짜기 아래로 자취를 감추었고, 무심과객은 고개 마루로 돌아갔으며, 회계 장장인은 몸이 아래로 축 늘어지고 푸른 수염이 전부 흰 털로 바뀌어 더이상 예전의 용모가 아니었다. 회계 장장인이 청빈일사를 돌아보며 말하였다.

“지금 나는 고단합니다. 부디 일사께서는 나의 무거운 짐을 풀어주시고 나의 온갖 춤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²⁷

달의 퇴장은 곧 인물들을 감싸주던 밝은 빛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로 인해 빛을 잃은 존재들이 허둥지둥하며 자취를 감추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달이 사라짐에 따라 자연물들이 더 이상 드러나지 않음을 표현한 것이다.

때마침 ‘화산 백거사(花山 白居易)’가 이들을 찾아온다. 그는 눈을 의인화한 인물이다. 그 근거로 견백주인과 회계 장장인의 털이 하얗게 변하였다는 점²⁸과 시간적 배경

27 已而陰氛四合，山氣溟溟，主人翁蹙然變色曰：“花山白居易復來矣。”先生徙倚而四顧，堅白主人已成皤皤老叟，清溪流匿跡於深壑底，無心過客歸於嶺上，而會稽張丈人肢體下垂，蒼髯盡為皓鬚，無復昔日容顏，丈人顧謂青藜逸士曰：“今我困矣，願逸士釋我重負，看我萬舞。”

28 그런 와중에 회계 장장인은 청빈일사에게 무거운 짐을 풀어주고 춤을 보달라고 하는데, 이는 소나무 몸통과 잎 위에 무겁게 쌓인 눈이 바람에 의

이 가을에서 겨울 넘어가는 시점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²⁹

이처럼 달의 퇴장과 눈의 등장으로 인해 시끌벅적하던 연회가 중단되고 다른 인물들도 퇴장하면서 작품 속 분위기는 겨울의 쓸쓸하고 적막한 분위기로의 전환을 맞는다.

선생이 마침내 옷을 걷어쥐고 누대를 내려가자 단관노선이 뒤를 따랐다. 산은 좁은 길도 없고 지상에서 105척 높이였다.³⁰

그에 따라 유선생도 퇴장한다. 이때 단관노선, 즉 선학(仙鶴)만이 유선생의 뒤를 따른다. 학이 신선의 상징임을 고려하면, 유선생이 하산하는 것은 속세로 나아가기 위함이라기 보다는 속세와 동떨어진 곳으로 나아가기 위함이다. 즉 유선생에게 신선의 모습을 중첩시키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그가 내려가는 길에는 ‘좁은 길도 없다’³¹고 묘사하고 있는데, 그 뜻은 누군가 앞서 간 적이 없어서 새로 개척해 나가야 하는 길을 의미한다. 즉, 유선생이 산을 내려가는 길은 누군가를 따르는 길이 아니라 홀로 나가는 길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다시 말해, 유몽인은 자기와 어울리며 위로하던 자연물들이 퇴장하고 꿈꿨던 얼어붙은 차가운 겨울의 상황이 오히려 불구하고 소나무처럼 절개를 지키고 선학처럼 속세를 떠날 것임을 암시한 것이다.³²

해 흠날리는 모습을,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소나무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29 한국고전종합DB의 번역에는 이 인물을 달의 의인화로 보았지만 이 인물은 눈의 의인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0 先生乃攝衣下樓，丹冠老仙從之。山無蹊徑，地上之百(원문에는 白)五尺矣。

31 혹은 지름길이 없다[無蹊徑]고 볼 수도 있다. 당(唐) 이에(李義)와 관련한 고사로 『新唐書』 권119(열전 제44)에 보인다. 그가 이부 시랑이 되어 인재 전형의 일을 맡았을 때 청알(講讀)이 행해지지 않았다. 그러자 당시 사람들이 ‘오얏과 복숭아는 말이 없으나 그 밑에 절로 길이 난다[桃李不言下自成蹊]’는 고사에 견주어 ‘오얏[李] 아래에 지름길이 없다[李下無蹊徑]’라고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석해도 유몽인이 다른 이의 청탁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를 갖기에, 좁은 길이 없다는 뜻과 상통한다. 또, 日下無蹊徑에서 따왔다고 볼 수도 있다. 이는 해 아래 지름길이 없다는 뜻으로,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음을 의미한다.

32 산이 105척 높이라는 말과 관련한 고사는 찾지 못하였다.

3. <풍악기우기>의 창작 배경과 특징

3.1. 몽유록 구조의 차용과 창작 배경

<풍악기우기>의 핵심적인 특성은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등장시킨다는 점이다. 이때 유몽인은 인물의 호칭, 내력, 행동 등을 서술할 때 원(原) 사물의 표면적인 특징만 주목하지 않았다. 자연물의 특성에 따라 모습과 행동을 제각기 재치있게 묘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사를 녹여내거나 중의적 의미를 가진 단어를 일관되게 활용하였다.

이처럼 의인화된 등장인물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측면은 가전(假傳)과 유사하다. 하지만 단어 사용을 넘어서 작품 전체를 살펴봤을 때는 차이를 보인다. 가전은 전(傳)의 전통을 비틀면서 출발하였기에, 의인화된 사물을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그 인물의 일생이 작품의 중심이 놓인다. 하지만 <풍악기우기>에서 의인화된 인물은 주변 인물로 등장하며, 그들의 일대기가 핵심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작품은 가전보다는 몽유록(혹은 몽유 전기소설)과 나란히 보는 것이 더욱 유의미하다.

우선, 작품의 도입부-등장부-연회부-종결부의 4단 구조는 몽유록의 구조와 유사하다. 몽유록의 구조를 '입몽-좌정-토론-시연-각몽'이라고 할 때, 입몽과 각몽은 도입부와 종결부에, 좌정은 자연물이 등장하여 자신을 소개하고 자리를 앉는 등장부에, 시연은 연회를 즐기고 시를 짓는 연회부에 대응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풍악기우기>는 특히 『기재기이(企齋記異)』의 <서재야회록(書齋夜會錄)>과 유사하다. 이 작품에서도 주인공으로 선비가 따로 설정되어 있고, 선비가 의인화된 필기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핵심이 된다. 이때 필기구들은 그 특징과 관련된 전고에 맞게 호칭이 정해지거나 내력이 소개된다.

다만, 차이점도 명확하다. <서재야회록>에서는 선비가 현실과 비현실(꿈)에 대한 경계를 인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선비는 그 인물들이 자신이 사용하는 필기구임을 알고

있으며 이후 꿈 밖으로 나오는 장면이 있고 이들을 위해 축문을 지어주는 등의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풍악기우기>의 경우 애초에 입몽과 각몽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유선생에게서 비현실과 현실의 구분을 살펴볼 수 없기에 몽유록과는 차이를 보인다.

더군다나 이 작품은 몽유록에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토론부가 부재한다. 몽유록의 주인공은 특정한 현실 문제에 대해 불울한 심사를 계기로 꿈속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그렇기에 꿈속 등장인물은 그 문제와 관련된 인물이며, 토론부에서 인물들은 그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침예하게 토론을 나눈다. 그 과정에서 등장인물들의 입을 통해 작가가 말하고 싶은 핵심을 언급하게 된다. 하지만 <풍악기우기>에는 토론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유선생은 몽유록의 주인공과 마찬가지로 불울한 심사를 내비침에도 불구하고 그를 포함한 등장인물 중 누구도 유선생이 갖는 불울한 감정의 정체에 대해 직접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다.

이처럼 특정한 사건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기에 적합한 몽유록 구조를 가지면서도 결국에는 어떤 것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 간극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즉 유몽인이 작품을 이렇게 구성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추측하기 위해서는 작품을 지었던 유몽인의 당시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작품의 창작 시기는 유몽인이 1622~1623년에 금강산을 2차로 방문하였던 때였다. 금강산을 방문하기 전 유몽인은 1618년(광해군 10) 60세에 인목대비 폐비론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북파에게 배척당하여 정계에서 파출되었다.³³ 그 후 와우산, 도봉산, 서호 등지를 떠돌며 우거 생활을 하던 중 1622년(광해군 14) 64세에 금강산의 유점사, 표훈사 등에서 은거를 하였다.

그렇게 들어온 금강산에서 유몽인은 겨울 동안 내내 병을 앓으며 죽을 고비를 넘기는데, 이로 인해 애초 머물

33 김홍백, 앞의 논문, 31쪽.

려던 기간을 넘겨 겨울이 지나서까지 금강산에 머물게 된다. 예상치 못하게 겨울에 깊숙하 산에서 더 지내게 되다 보니, 양식을 구하는 일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³⁴

이후 금강산에서 머물던 중 인조 반정이 일어나 대북파가 몰락한다. 유몽인은 이 소식을 금강산에서 듣는다. 이후 금강산을 하산하여 다시 떠돌다 용인의 보개산(寶蓋山)에 들어가게 된다. 그곳의 승려들이 ‘금강산을 떠났으면 관직을 위한 것일텐데 왜 다시 산으로 들어왔는가’라고 묻자, 유몽인은 ‘금강산에서 나온 것은 벼슬을 위해서가 아니라 양식을 위해서’³⁵라며 인조 조정에 나아갈 뜻이 없음을 밝힌다. 이때 <상부사(孀婦詞)>로 알려진 <제보개산사벽(題寶蓋山寺壁)>³⁶을 짓게 된다. 유몽인은 이후 이 시가 화근이 되어 대북파를 제거한 인조 반정 세력에 의해 광해군 복위 계획에 가담했다는 무고로 잡혀 처형을 당한다. 즉, 작품의 창작 시점의 유몽인은 병으로 죽을 고비를 넘겼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대북파에게서도, 반정파에게서도 모두 배척을 당하던 위태로운 입장이었다.³⁷

작품 속 유선생이 내비치는 불울한 감정은 여기서 왔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몽인은 자신의 불울한 감정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싶었다. 그렇기에 금강산의 여러 자연물들에게서 위로를 받는 작품을 지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자신의 상황에 대해 감정이나 의견을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는 없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유몽인은 정

34 “余在京師。聞若說不信之。泊入茲。邁大癘。無食糧肉魚。阻積雪。備嘗萬苦。乃今知其難也。”(『贈星槎山奇奇菴少彌敬允序』, 『어우집』 제4권)

35 “余老妾人也。向之入山。非輕世也。樂山也。今之去山。非爲官也。乏食也。”(『遊寶蓋山贈靈隱寺彥機雲桂兩僧序』, 『어우집』 제4권)

36 『어우집』 제2권 「금강록(金剛錄)」.

37 “그런데 유몽인은 폐모론 정국의 복인 정권에서는 폐출되었고 반정 초기의 서인 정권에서는 처형당할 것이다. 복인에 속하면서 복인에 완전히 속하지 않고 서인에 동조하면서 서인에 완전히 동조하지 않은 유몽인의 정치적 입장은 어디에서 연유하는가?” 김홍백, 「유몽인의 1623년」, 『한국문화』 74,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6, 194쪽. 그 외에도 인조 정권에 대해 ‘끓주린 자들에게 음식을 주는 것과 같기에 백성들이 기뻐하는 것’이라며 그다지 호의적인 시선을 보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又聞新王立。革亂政數仁惠。民庶靡如也。聞之不驚賀者。創者易爲食。猶以齊王也。”『遊寶蓋山贈靈隱寺彥機雲桂兩僧序』, 『어우집』 제4권).

치적으로 매우 위태로운 지경에 있었기 때문이다.³⁸ 그렇기 때문에 유몽인은 실제의 경험과 생각을 사실적으로 기술하는 산수유기보다는 풍유록의 구조, 전기소설의 설정을 차용하여 허구적으로 형상화하는 방향을 택하였다.

그러면서도 그 구조의 핵심 요소는 위태로운 유몽인의 상황에 의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였다. 불울한 상황에 처하게 된 이유, 당시 정국 등에 대해 직접적으로 의견과 감정을 내비치는 토론부나 시를 넣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선생은 그 어떤 것도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은근히 드러내기만 하는 모습으로 그려졌다. 더군다나 인간이 아닌 자연물들과 어울려 스스로를 위로하는 모습은 되려 작품의 분위기를 더욱 쓸쓸하게 만들었다.

3.2. 경험의 은근한 반영과 위로를 위한 글쓰기

<풍악기우기>가 독특한 지점은 산행의 경험이 허구적으로 형상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때 작품이 순전히 허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유몽인 실제의 경험이 ‘은근히’ 반영되어 만들어졌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이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 단관노선(학)과의 만남이다. 단관노선은 유선생과 유몽인의 연결점으로 작용한다. 다른 인물들과 달리 단관노선은 과거 30년 전에 유선생과 만난 적이 있음을 언급하는데, 유몽인은 실제로 약 30년 전 학을 만났다는 기록을 남긴 적이 있기 때문이다.³⁹

유몽인은 평생 금강산을 총 두 차례 방문하였는데, 첫 방문은 1590년(선조 23) 32세에 강원도사가 되었을 때 이루어졌다.⁴⁰ 이때 유몽인은 금강산 유람에 관한 기문(記文)

38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금강산에서 하산한 직후에 있었던 무고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유몽인은 자신의 입장을 드러낸 비유적인 작품이 빌미가 되어 죽음을 맞이할 정도로 위태로운 정치적 격변기 아래에 살아 있었던 것이다.

39 三十年前與先生有舊。敢來拜。

40 余將遊叢石。仍入金剛山。(『別尹時叔昌鳴陪使相歸營仍酬短絕以贖行序』, 『어우집』 후집 제3권 「서(序)」) / 한국고전종합DB의 주석에는 강원도 관찰사 구사맹(具思孟, 1531~1604)과 금강산 산행을 함께 하였다고 되어 있지만, 이 글에서 강원도 관찰사를 모시고 있는 자는 윤창명으로 유몽인은 그와 헤어져서 금강산으로 들어간다는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는 오류인 듯하다.

을 작성하였지만⁴¹ 이는 임진년의 전란 중에 소실된다. 다만 <관동기행이백운(關東紀行二百韻)>이라는 운문 작품⁴², <別尹時叔昌鳴陪使相歸營仍酬短絕以驢行序>⁴³와 <題紺坡崔有海號副墨遊金剛山錄後>⁴⁴ 등이 전해지므로 이를 통해서 유몽인의 1차 방문을 엿볼 수 있다.

유몽인은 강원 도사로 출사한 것을 계기로 평소 숙원이었던 금강산과 그 주변의 승지 유람을 가게 된다. 이때 명소들의 특징이나 그곳에서의 일화나 경험, 관련 인물의 이야기 등을 상세히 기록해두었는데,⁴⁵ 그러한 와중에 유몽인은 평소 유람객들이 한 마리도 보지 못하는 학을 일곱 마리나 봤던 경험도 기록으로 남겼다.

명경암 위의 매우 가파른 서쪽 봉우리에 학 둥지가 있는데, 붉은 머리에 푸른 날개와 붉은 목을 가진 학이 살고 있다. 내가 이리저리 둘러보니, 개골산 금강대 위에도 학 둥지가 있었다. 내가 대 아래 폭포 위에서 놓고 있는데, 문득 일곱 마리의 학이 동천(洞天)을 빙빙 돌았다. 여러 승려들도 모두 본 적이 없었기에 한 노승이 조용히 말하기를, “선학(仙鶴)은 사람

을 피하기 때문에 유람객 중에는 한 마리를 본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일곱 마리나 보이다니! 이 손님은 필시 비상한 사람이다”라고 하였다.⁴⁶

위 인용문의 붉은 머리, 푸른 날개, 붉은 목을 가진 학이 바로 <풍악기우기>의 단관노선임을 추정하기는 어렵지 않다. 이런 지점에서 유몽인이 이 작품을 순전히 허구로 지어낸 것이 아니라 실제 경험에 허구를 엮어 지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은 작품 전체에 반영할 수 있는데, 작품 속 유선생의 생각이나 자연물에 대한 인상도 유몽인의 경험과 관련지어 다시 읽어볼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학은 종결부에서 다시 등장하는데, 눈이 내리고 다른 인물들이 퇴장할 때 ‘유선생’은 학과 함께 하산한다. 이는 ‘유몽인’이 추운 겨울 즉, 다가오는 힘겨운 현실 앞에서 신선처럼 속세를 떠날 것임을 암시했다고 읽을 수 있다.

그 다음 소나무가 등장하는 장면을 살펴보자. 유선생은 다른 인물과 달리 소나무가 등장할 때는 그의 의용을 뛰어나다고[奇] 여겨 신발을 거꾸로 신다시피 하며 맞이한다.⁴⁷ 이는 허투루 서술된 지점이 아니다. 유몽인이 평소 절개에 대해 긍정적으로 서술해왔으며⁴⁸, 인조반정의 소식을 듣고 자신을 절개를 지키는 늙은 과부에 빗댄 시(<題寶蓋山寺壁癸亥>)를 썼다는 배경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나무는 추운 겨울에도 홀로 곧고 푸르기에 절개의 상징이다. 그렇기에 유몽인은 절개를 숭상하는 태도를 직접 서술하는 대신에 소나무를 맞이하는 장면을 그림으로써 간접적이고 은근한 방식으로 내비친 것이다.

41 “옛날 30여 년 전 근력이 튼튼하여 산을 잘 올랐으니 저만큼 안팎의 높은 산을 남김없이 유람했던 자는 없었습니다. 그때 저술한 유산록(遊山錄) 한 통이 우리나라에서 널리 읽혔지만 병화에 사라졌습니다”라는 언급을 살펴보면 금강산 관련 산수유기 혹은 유산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嚮在三十年前, 富筋力善登陟. 窮隄內外嶽莫我若也. 有遊山錄一通, 行于東方. 失之兵火. 『贈表訓寺僧慧默序』, 『어우집』 제4권 「서(序)」).

42 이는 전란 중 유실된 원고 중 하나로 보이며, 강릉의 진사 최삼(崔參)이 보 관하고 있다가 1605년 7월 유몽인에게 보내준 것이다(壬辰亂, 失本藁. 乙巳七月, 江陵進士崔參寄送. 且贈詩曰, 賈胡曾逞剖身癡. 寸壁應須鬼護持. 倘欠相如完返趙. 終然虛擲十城資. 『關東紀行二百韻關東錄○庚寅』, 『어우집』 후집 제1권, 시(詩) 「관동록」).

43 『어우집』 후집 제3권에 수록되어 있다. 금강산을 유람하기 전 동석하던 윤창명과 갈림길에서 헤어지기 전 준 서이다.

44 『어우집』 제6권에 수록되어 있다. 최유해의 「영동산수기(嶺東山水記)」가 전하며 여기에 금강산에 올랐던 여정이 드러나 있다. 최유해는 1617년 대 북파에 의해 삭직된 후 1620년 분호조 낭관으로 일하면서 9월에 금강산 유람을 떠났다. 유몽인이 쓴 제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 최유해의 금강산 유람과 유몽인의 금강산 유람의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1차 산행의 경험이 담긴 글로 보았다.

45 이러한 내용은 「題紺坡崔有海號副墨遊金剛山錄後」(『어우집』 제6권 「제발(題跋)」)에서 살펴볼 수 있다.

46 “明鏡巖上西峯甚峭. 有鶴巢. 丹頂青翼赤頸棲焉. 余游目見之. 皆骨山金剛臺上有鶴巢. 余遊臺下瀑流上. 忽有七鶴回翔洞天. 諸僧皆未曾覩. 有老釋潛相與曰. 仙鶴避人. 遊人未有見一隻. 況此七鶴乎. 此實必非尋常也.”(『題紺坡崔有海號副墨遊金剛山錄後』, 『어우집』 제6권 「제발(題跋)」)

47 선생은 그의 의용(儀容)이 뛰어나다고 여겨 신발을 거꾸로 신다시피 하며 나아가 맞이하였다(“先生奇其儀表, 倒屣而迎之”).

48 유몽인은 자신의 고문관을 피력하며 절의가 있는 인물들을 뽑기도 하였다. 또한 그러한 절의와 관련한 태도를 유몽인의 여러 산문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홍백, 앞의 논문 참조.

그렇기에 작품의 핵심 내용인 ‘유선생’과 여러 인물들이 누대에서 연회를 펼치는 모습은 곧 ‘유몽인’이 금강산에서 밤에 홀로 누대에 올라 여러 ‘자연물’을 감상하며 술도 마시고 시도 지으며 스스로의 심신을 ‘위로’하다가 내려온 것이라고 변환하여 읽을 수 있다.

이때 주목해야 하는 지점은 ‘유선생의 위로’다. 유선생은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누대에 올랐고, 등장인물들은 유선생을 위로하고자 연회를 열었기 때문이다. 즉, 작품의 중심에는 ‘위로’가 놓여 있는데, 이를 바꿔 말하면 현실에서 유몽인은 자신을 위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이는 유몽인의 실제 상황, 즉 지독한 병치레와 어지러운 정국 속 대북파와 인조반정파로부터 모두 배척을 받고 있었던 상황과 연결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러한 맥락에서 유몽인의 글쓰기는 허구적 글쓰기, 특히 몽유록과 맞닿게 된다. 몽유록을 통해 꿈이라는 허구적이고 우연적인 세계를 만들어 그 속에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인물들과 토론하거나 시를 주고 받는 과정을 통해 생각과 감정을 토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유몽인은 이를 온전히 가져오지는 않았다. 작품 속에서 유선생은 어떠한 감정과 생각을 갖고 있는지, 왜 그러한 감정을 가지게 되었는지 등을 직접적으로 토로하지 않고 은근히 암시만 하였다.

예를 들어, 누대를 오르는 계기가 되는 것은 병으로 누워 있다가 나아서 스스로의 번민을 달래기 위해서다. 하지만 어떠한 번민을 느꼈는지 그 구체적인 감정은 작품 내내 서술하지 않는다. 또, 연회가 무르익었을 때 유선생이 시를 써내지만 그 시의 내용은 제시되지 않는다. 산귀신과 숲도깨비까지 울릴 정도라는 표현을 통해 볼 때 이 시에는 분명 유선생이 갖고 있었던 불울한 심정, 즉 작품의 주제 혹은 핵심이 담겼을 것이지만, 이를 드러내지 않고 추측만 해볼 수 있게 한다.⁴⁹

이처럼 유몽인은 불울할 심사를 위로하고자 허구적인 세계를 가진 작품을 지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하고 싶은 말을 숨기고는 은근히 암시만 하는 선에서 그쳤다. 모든 것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에는 유몽인이 정치적으로 위협한 상황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 결과 유몽인은 보다 안전한 허구의 세계에서 의인화된 자연물들이 자신만을 위해 연회를 열고 위로를 해주는 글을, 어찌 보면 회작적인 성격을 갖는 글을 쓰게 되었다. 이러한 지점에서 이 작품이 독특한 면모와 의의를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나가며

유몽인은 스스로의 문장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남들을 따라가는 글이 아닌 자신만의 다른 글을 쓰려고 노력해왔다. 더군다나 필기에서 벗어난, 야담의 시작으로 평가받는 <어우야담>과 같은 독특한 작품집을 짓기도 하였다. 이처럼 유몽인이라는 독특한 작가, 조선 최고의 명산이라 불리는 금강산이라는 공간, 정권 교체기라는 정치적 혼란 상황이 맞물리며 <풍악기우기>가 탄생하였다는 점에서, 이 작품을 유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은 틀림없다.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선 표현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모든 것을 드러내면 죽고 마는 위태로운 정치적 상황 아래에서, 어쨌건 유몽인은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글을 썼다. ‘드러냄’과 ‘은근함’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였고, 그러한 고민의 결과 세심한 의인화와 인물 설정, 감정과 생각의 은근한 배치라는 특징을 가진 <풍악기우기>라는 작품이 도출되었다. 그러한 <풍악기우기>는

인은 백성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는 국가에 대해 부정적이고 막막한 시선을 갖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유선생이 적은 시에는 자기 상황뿐만 아니라 나라에 대한 걱정과 관련한 감정이 담겨 있었을 가능성도 높다(即今觀國家多事, 百姓嗷嗷, 削肌酷骨, 左啖右齧, 如入湯鼎之裏, 其夫負妻戴而去也. 墳坑仆壑, 磔犬流屍者相藉, 雖其存者, 鵲借鳩巢, 張換李室, 舉八道無一安棲)(『贈表訓寺僧慧日序』, 『어우집』 제4권).

49 유몽인이 표훈사에 머물 적에 승려들에게 썼던 서(序)를 살펴볼 때, 유몽

몽유록이나 전기소설의 자장에서 살펴볼 수 있으면서 실제 금강산 산행 경험과 관련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우리 문학에 다양성을 보충해주고, 문학을 통한 위로라는 맥락에서도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만, 필자는 실력의 부족으로 작품 자체와 작품을 창작했을 당시의 상황에만 집중하였을뿐, 유몽인의 산문 세계 전체를 조망하는 큰 틀 아래에서 <풍악기우기>를 해석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러한 지점에서의 부족함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후속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어우집』, 한국고전종합DB.

2. 단행본 및 논문

김홍백, 「유몽인의 經世 의식과 산문세계」,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4.

_____, 「유몽인의 1623년」, 『한국문화』 74,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6.

신광한, 박현순 역, 『기재기이』, 지만지한국문학, 2024.

신익철, 『『어우아담』의 창작 정신과 서사 방식』, 『고전문학연구』 12, 한국고전문학회, 1997.

_____, 「『어우아담』의 서사방식과 초기 아담집으로서의 특성」, 『한국학』 33(3),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심경호, 『산문기행: 산에 오르며 내면을 채우는 조선 선비의 산행기 65편』, 민음사, 2022.

안득용, 「『於于先生年譜』 譯註: 柳夢寅의 출생에서 사망까지」, 『고전과 해석』 32, 고전문학한문학회, 2020.

안세현, 「柳夢寅의 『遊眞流山錄』 연구: 지리산 遊記의 전통과 관련하여」, 『동양한문학연구』 24, 동양한문학회, 2007.

이채경, 「『어우아담』에 담긴 지적경험과 서사장치」, 『대동한문학』 66, 대동한문학회, 2021.

정치영,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유람 중의 활동」, 『역사민속학』 42, 한국역사민속학회, 2013.

최기숙, 「조선시대 지식인의 글쓰기 실험과 『어우아담』」, 『동방학지』 187, 연세대학교학연구원, 2019.

3. 기타 자료

『동국대학교 불교용어사전』, 한국불교문화포털(<https://buddhaland.dongguk.edu/dictionary>)

Abstract**A Study on Yu Mong-in's <Pung-akgiugi(楓嶽奇遇記)>**

Jo, Hyeon-Seok | Korea University

<Pung-akgiugi>, included in the “Miscellaneous Writings[雜著]” section of 『Eoujip』 Book 6, is a work written by Yu Mong-in based on his visit to Mount Geumgang in 1622–1623. While adopting the form of ‘gi(記)’, a factual record, the work uniquely features fictional narratives with personified natural elements of Mount Geumgang.

The work is structured in four parts: introduction, entrance, banquet, and conclusion, similar to but subtly different from traditional Mongyu-rok or Jeongi novels. Yu particularly emphasized the entrance section, meticulously crafting characters through consistent use of polysemous words and historical allusions.

The work's creation period is particularly significant. While expressing the protagonist's melancholy and consolation, it deliberately omits explanations of the circumstances. During this time, Yu Mong-in faced not only physical crisis due to illness but also political persecution from both the Northern faction and the forces behind the Injo Restoration. Consequently, Yu deliberately omitted sections for debate and poetry that might have revealed his opinions and emotions about his unfortunate circumstances.

<Pung-akgiugi> represents the convergence of Yu's unique literary style, political circumstances, and Mount Geumgang's majestic landscape. The work stands as the result of careful negotiation between revelation and subtlety, serving as an example of literature's consolatory function. Furthermore, while it can be examined within the context of dream-journey literature and classical novels, it contributes to the diversity of Korean literature through its connection to actual mountain-climbing experiences.

Keywords Pung-akgiugi, Yu Mong-in, Mount Geumgang, creative background, personification, Eo-ujip
